

대중적 인기 누리는 외국作家들

시드니 셸던 등 10여 작가 집중소개...중복출판의 폐해도 심각

베스트셀러의 훈장을 패용한 일련의 번역 소설들이 서점가를 휩쓸고 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최고의 베스트셀러'나 '미국현지에서 발매 한달만에 백만부 돌파'니 하여 그 빛깔은 제각각이지만, 원산지에서 수여받은 베스트셀러라는 훈장의 광채가 국내에 수입돼서도 전혀 바래지 않은 채 위력을 떨치기는 한결같다. 호머 이래 내로라는 동서양의 고전들이 흔히 '읽혀지지 않는 필독서'로 남아 있는 현상의 대적점에서, 英美 엔터테인먼트소설을 비롯한 현대의 베스트셀러들이 국내 출판계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특히, 이즈음에는 외국인 베스트셀러 장탈전이 중복출판에 따른 저작권 분쟁까지 야기시킬 정도로 혼미스럽다. 이같은 현상은 베스트셀러의 후광이 그만큼 매혹적일 수 있다는 한 반증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은 국내에서도 '한 수 접어들어갈 수 있다'는 상업적 계산과 통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런 상업적 계산은 우리 독자층의 대중물 취향과 맞물려 떨어져 꾸준하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미국산 '엔터테인먼트 소설'들이 주종

그 확대재생산의 폭과 속도를 가장 최근에,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미국작가 시드니 셸던의 작품들. 영화와 TV드라마로 소개돼 큰 인기를 끌었던 「깊은 밤 깊은 곳에」 「게임의 여왕」을 비롯, 중복출판을 포함해 근 30종이 쏟아져 나와 있다. 아예 '시드니 셸던 대표작시리즈'를 내고 있는 출판사도 신원, 오늘, 청목, 문화광장 등 네곳이나 되며, 저마다 셸던의 '최신작'임을 표지에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이중 김영사판의 「시간의 모래밭」이 정식 판권계약을 맺어 출판된 드문 예에 속한다.

사건전개의 속도감과 수다스러울 만큼 풍성한 묘사로 미국 연애소설의 대가로 꼽히는 스틸은 「러브체인지」 「방황하는 영혼」 등 10여종이 소개돼 있다. 소설에 관한 한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라고 평가되는 크란츠 역시 10여종의 작품이 역간돼 있는데, 장왕록(「맨하탄의 여왕」) 신정옥(「테이지 공주」) 등 전문학자가 번역한 전예원판이 돋보인다.

로빈스의 경우는 「보스」 「후계자의 야망」 「체너두」 등 20여종이 10여 출판사에 의해 출간돼 있다. 한국양서와 연지사 두 곳에서 시리즈로 집중간행하고 있으며, 셸던의 경우

처럼 중복출판이 눈에 많이 띈다.

그밖에 본격소설과 대중작가의 양면을 보이는 어윈 쇼의 작품이 「젊은 사자들」 「야망의 계절」 등 10종이 넘게 나와 있고, 「천국의 열쇠」로 유명한 의사 출신 작가 A.J. 크로닌도 청목과 지성문화사의 시리즈를 포함, 20여종이 서점의 점두에 나와 있다. 같은 영미권의 호주작가 콜린 맥컬로우의 경우는 TV드라마로 소개된 대표작 「가시나무새」가 10여

**외국의 베스트셀러들은
과연 우리에게도 베스트셀러인가.
국내 독자들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외국작가는 누구인가.
최근 일련의 '엔터테인먼트소설'을
비롯한 외국 대중작가들의
작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베스트셀러현상의 원산지에서
한국으로의 轉移가 일상화하고 있다.**

곳에서 중복출판된 외에 「내일의 천국」 「여자의 집념」 등이 더 나와 있어, 역시 국내에서 인기있는 외국 베스트셀러작가의 반열에 올라있다.

이들 일련의 영미권 대중소설들에서 '할리우드적 감수성으로 포장된 아메리칸 드림의 현대적 변형'을 발견한다는 작가 高元政씨는 "작품 자체가 지닌 통속적 흥미가 베스트셀러가 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이미 외국에서 베스트셀러였다는 선입관이 독자들에게 주입됨으로써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지는' 측면이 오히려 클 것"이라고 진단한다.

번역가 이승렬씨도 "베스트셀러현상의 원산지로부터 한국으로의 轉移는 분명 상업주의의 부추김에 큰 원인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영화나 TV로 극화된 작품들을 한 두편씩 갖고 있는 작가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는 사실은 음미해볼적하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만' 인기있는 작가도

영미 엔터테인먼트소설과는 또다른 측면에서, 불란서의 프랑소와즈 사강, 독일의 루이제 린저, 일본의 三浦綾子 등도 그들의 모국보다는 오히려 한국에 더 광범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여류작가들.

이중 사강의 경우는 이제 그 열기가 다소 시들해진 느낌은 있으나 여전히 인기작가로서의 길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8개사에서 중복출판된 「슬픔이여 안녕」을 비롯, 「길모퉁이의 카페」 「흐트러진 침대」 등 20여종의 작품이 나와 있고, 70년대 말엔 전 10권의 「사강 全作集」이 명문당에서 간행되기도 했다. 번역의 부실함과 무성의가 자주 눈에 띄는 영미권 대중소설에 비해, 방곤, 배기열, 이환, 권오중 등 불문학 전공학자들의 번역이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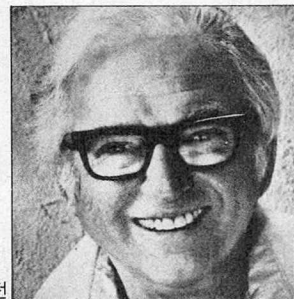
최근 북한방문기(「또 하나의 조국」)와 在獨 작곡가 윤이상의 이야기를 엮은 「슬픈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루이제 린저는 다소 특이한 경우. 독일 현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한국에서만' 인기있는 작가로 평가되는데, 60년대에 전해린의 에세이를 통해 그 편린이 소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붐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작 「생의 한가운데」가 10개사 이상에서 중복출판된 것을 비롯, 지금까지 40종 가까운 책이 나와 있다.

「빙점」의 작가 三浦綾子は 山岡莊八(徳川家康), 吉川英治(豊臣秀吉) 등 대형전기물 작가의 인기가 일시적이었던 데 반해, 일반단행본으로 서점가의 가장 꾸준한 인기를 모으는 작가로 평가된다. 교보문고의 「88종합도서목록」에만 무려 84권이 출간된 것으로 나타나며, 역시 중복출판이 많다. 또, 작가의 기독교 신앙이 반영된 소설 및 에세이가 教界와 관련있는 출판사들에서 간행된 경우가 눈에 많이 띄는 것도 특징적. 「빙점」의 경우는, 60년대 말 일본 「朝日新聞」에 연재중이던 것을 우리측에서 먼저 책으로 묶어내는 기민한 상흔을 발휘하는 바람에 일본현지의 호된 비난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상업성과 화제성의 결탁

외국에서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가 국내에 수입돼서도 반드시 베스트셀러일 필연성은 물론 없다. 문학의 힘을 일러 보편적이라고들 하지만, 특정한 책을 베스트셀러이게끔 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감각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드니 셸던 등의 작품은 우리 나름으로 '선택'한 베스트셀러일 수 있으며, 따라서 문제는 그 선택의 잣대가 무엇이냐는 점이다.

그것이 '화제성'임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청맥출판사 편집장 권대웅씨는 "문학적이든 문



시드니 셸던



쥬디스 크란츠



다니엘 스틸

학적이든 일단 화제가 된 책은 많이 팔릴 수 있다는 상업적 계산이 깔려 있게 마련"이라고 하면서 "특히 외국에서 베스트셀러로서의 화제성을 이미 확보한 작품인 경우 그 화제성 자체가 효과적인 광고전략으로 손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출판사들의 부담이 덜하다"는 측면을 지적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베스트셀러의 화제성이 야말로 출판상업주의의 낭비적인 무분별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중복출판의 폐해가 어느 작가를 막론하고 두루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화제성의 왜곡된 확산이 아닐 수 없다는 것. 그러다보니 번역의 질이 또한 문제가 되는데, 일련의 외국 베스트셀러 번역에 무소불능의 활약을 보이는 J씨의 경우를 상징적으로 꼽을 만하다.

문학평론가 박덕규씨는 "원작에선 나름대로의 문학적 향기를 풍기는 性的 묘사 같은 것이 우리말로 옮겨졌을 때 추하게 범속화하는 예를 자주 본다"고 말하면서 "비록 외국의 대중소설일지라도 그 대중소설의 정확한 수준을 이해할 수 없게 하는 '날림번역'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철주 기자